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김소야자* · 현명선* · 성경미* · 공성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약물이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약물사용의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약물사용의 긍정적인 면으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한 약물의 의학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자기파괴나 사회적파괴의 의미가 있다.

WHO의 정의를 보면 약물남용이란 의도행위의 규정에 맞지않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이며, 약물의존이란 약물사용의 증지로 인한 불편감을 피하고 정신적인 약물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약을 얻고자하는 강박성이 부수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증독상태를 말한다.

약물남용은 전 연령층에서 볼 수 있지만 최근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약물남용자의 연령이 하향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시경쟁으로 공부만을 강요하는 강압적 환경요인으로부터 받는 불안과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은 비의학적인 목적으로 각종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현실에 놓여있다.

1981년에서 1988년까지 청소년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물사용 및 남용이 증가하고 연소화 및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약물남용과 비행과의 높은 상관성과 더불어 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약물남용 예방 대책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놓고 2년마다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차로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 문화 연구원에서 김(1989)이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바 있으며, 그후 1991년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김(1991)이 전국에 있는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 약물남용이 중요한 것은 사춘기가 점점 저연령화되는 반면 고학력 풍토로 사회경제적 자립연령이 고령화되어 청소년문제가 양적으로 증가되었고 핵가족화와 이혼, 별거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로 가정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며, 그밖에 성인위주로 제작된 대중매체로 인해 성적, 공격적인 면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으며 날로 심해지는 대입경쟁으로 인해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겨나고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전통적 윤리의 규명이나 가치관이 붕괴되어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약물남용실태 조사는 약물남용의 예방대책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학교실

청소년의 개인적특성 뿐아니라 청소년의 환경적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와 더불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비교를 하여 약물남용의 예방대책에 관한 지침 및 평가자료로 제공될 수 있겠다. 김(1989), 김(1991)은 지역별로 청소년의 약물사용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김(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산지역은 흡연, 음주, 대마초, 본드가, 대전지역에서는 최면제, 각성제의 남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 중 서울과 광주 지역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약물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1991)은 전체 약물에 대한 이용 인수를 각 지역의 분석 대상자 수에 따른 비율로 비교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대구 지방이 129.8%로 가장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서울 127.2%, 경기도가 123.6%, 부산 118.8%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환경에 대한것을 포함하여 약물사용의 동기 및 약물사용실태에 관하여 조사하려고 하며 특히 서울지역으로 국한한 이유는 본 연구자가 서울지역에 있는 양호교사 100인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양호교사 10인(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이 한 학교당 2학년씩 학생들에게 약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을 실시하고나서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양호교사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제까지 지역별로 약물실태에 대한 자료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태에 관하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기초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도에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소야자 연구의 반복연구로써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실시된 서울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의 추이와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사용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자료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기관의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데에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 (1)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 (2) 청소년의 약물사용 동기에 관하여 조사한다.

(3)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상관 변인을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은 60년대와 그 이전에 마약이 문제가 되었고 70년대에는 대마가, 80년대에는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메스암페타민이 처음에는 유흥가나 사창가 혹은 일부 범죄자나 문제청소년, 연예인에게나 남용되었는데 차츰 '살 빼는 약', '술 깨는 약', '잠 오지 않는 약', '신경통에 잘 듣는 약' 등으로 일반인, 학생, 주부, 농촌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법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대체약물인 진해제, 부탄가스, 마취보조제인 날부민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법적인 제제가 없는 날부민은 마약진통제로서 습관성 중독성이 있으며 금단증상도 나타나는 약물이며 의사의 처방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주(1990)의 조사에 의하면 1974년 대학생의 대마 흡연 실태는 남자 대학생이 33%, 여자 대학생이 3%에서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50%정도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마흡연에 대한 법 적용 이후의 실태를 보면 1990년도 조사자료에서는 남자 중 3학생과 고 3학생의 0.5%, 3.9%로 대마흡연 경험이 감소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드의 경우 1980년에 중 3학생 11.5%, 고 3학생 13.2%가 본드 흡입 경험이 있었으며 본드 흡입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적 통제가 있는 후에는 1990년초 자료에 의하면 본드 흡입 경험이 중 3학생의 0.6%, 고 3학생의 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이(1989)는 학생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였는데 서울지역에서의 실태를 보면 음주(41.5%), 각성제(29.1%) 그리고 흡연(25.9%)으로 보고하였으며, 부산은 음주(56.9%)와 흡연(45.4%) 및 각성제(28.1%) 등의 순이었으며, 그밖에도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약물실태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한국의 전반적인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국적인 조사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1991년에 김(1991)은 전국에 있는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한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역별로 약물실태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그중 서울 지역을 보면 흡입제 20.5%, 각성제 12.8%, 환각제 5.7%, 항히스타민제 4.6%, 수면진정제 3.8%, 마약 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약물남용실태 조사는 약물남용의 예방대책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비교를 하여 약물남용의 예방 대책에 관한 지침 및 평가자료로 제공될 수 있겠다.

2.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행동이 환경의 소산이라고 본다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유발요인은 청소년기라는 특징적 시기 뿐만 아니라 남용시 사회환경 및 성격 발달과정상의 가정환경적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먼저 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정 사회환경 모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 청소년기의 특징 및 개인적 동기

청소년기란 소아가 끝나고 성인이 되기 이전의 시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로 친구관계, 인격의 성숙, 진로선택, 학업, 이성교제 등 다양한 발달과제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신체적으로는 소아적 상태에서 성인적 상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2차 성장이 두드러지며, 심리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정서적 변화가 심한 시기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 즉 외모, 체형의 변화, 공부, 친구, 가족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처해나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면서 욕구불만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억압된 욕구의 비정상적 처리의 한 형태로 약물에 의존해서 쉽게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청소년기가 약물남용과의존에 상당히 취약한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약물남용 청소년 수의 증가 추세, 연소화, 약물비용과 비행, 범죄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Chinlund, 1974, 김 외 2인, 1988, 김, 1989)

김(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물을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서 잠을 안자기 위해서(31.8%),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28.5%), 교우관계 추구(12.8%), 평화추구(11.6%) 등이었으며, 주로 청소년의 학교성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각성제를 사용하며 그 외에도 환각제나 흡입제의 약리작용을 탐닉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사용 동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화추구형이나 모험추구형 사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힘추구형이나 교우관계 추구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처음에는 강한 힘을 위해 또는 친구의 권유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심적 갈등 해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청소년은 주로 개인적 고민, 입시 등으로 인해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가정기능적 동기

김(198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크고 청소년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아버지가 흡연을 많이하고 아버지의 흡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부모가 약물을 남용할수록 청소년의 흡연, 음주, 최면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술, 담배를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술, 담배를 안하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빨리 배우고 부모들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청소년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습관을 배우게 되며 적대적인 감정상태에서 부모의 약물복용 습관을 모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사회적 동기

청소년 약물남용은 동료집단이나 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험하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같은 나이의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수용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동료압박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남용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Kandel et al, 1975).

이 등(1985)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호기심 내지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흔한데 대개 담배, 술에 손을 대다가 친구관계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 약물을 섭취하게 되며 다시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적특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환경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시 600여 인문계 중·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무작위로 표출한 다음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2학년급을 임의로 표출한 20개 학급으로 총 10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58명의 청소년중에서 탈락자를 제외한 965명이 최종선정되었으며 남자 중학생이 253명, 남자고등학생 263명, 여자 중학생 249명, 여자 고등학생이 200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김(1991)이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지는 1991년도에 수행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에서 타당도 검사를 거친 구조화 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을 보면 개인적 특성 40문항 가정의 구조환경적 특성 37문항, 약물의 사용실태 121문항으로 총 198문항이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약물사용의 종류, 사용빈도, 사용량, 중복사용 실태, 약물의 구입처, 구입비용, 구입자금, 약물사용 장소, 약물사용 동반자, 사용후의 증상, 약물사용후의 상담대상자, 상담의 필요성 여부, 약물사용 동기등의 내용이며 그의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약물 사용의 해결방안, 개인의 일반적 특성, 가정과 학교환경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진이 서울지역에 있는 양호교사 100인을 대상으로 약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10개교(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의 양호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2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수락을 받은 후에 본 연구진이 안내문과 더불어 설문지를 가지고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총 1058개의 설문지 중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여 최종 965개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의 방법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인수 및 백분율, t-test, ANOVA의 방법으로 약물사용실태 및 약물상관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 청소년의 남녀비율은 54 : 47로 남자가 약간 많았다.

연령은 12-14세가 41.7%, 15-17세가 56.4%, 18세 이상이 1.9%으로 1991년도에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소야자 등의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남녀비율 51 : 49와 연령분포 12-15세(54.3%), 16-20세(45.7%)와 유사했다.

학년별로 보면, 중 1이 15.8%, 중 2가 25.7%, 중 3이 10.4%, 고 1이 24.6%, 고 2가 23.4%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김 등의 연구대상 분포인 중학생 51.1%, 고등학생 48.9%와 비슷한 분포인 중학생 52%, 고등학생 48%로 이다.

종교는 기독교인 경우가 41.2%로 가장 높았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33.5%로 비교적 높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65)

구분	인수	비율
성별	남	516 (53.5)
	여	449 (46.5)
연령	만 12-14세	399 (41.7)
	만 15-17세	450 (56.4)
	만 18세 이상	18 (1.9)
학년	중 1	152 (15.8)
	2	248 (25.7)
	3	100 (10.4)
	고 1	237 (24.6)
	2	226 (23.4)
종교	불교	122 (12.7)
	기독교	396 (41.2)
	천주교	106 (11.0)
	유교+기타	15 (1.5)
	없음	322 (33.5)

2) 고민 및 불만

대상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학교성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외모문제 7.9%, 이성문제 5.5%, 동성친구문제 4.7%, 건강문제 1.8%,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0.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상자들의 불만은 부모-자녀 관계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 18.4%, 학교성적으로 인한 불화 16.2%, 가족의 건강문제 11.9%의 순이었으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불만도 소수 있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고민 및 불만 (n=965)

구분	인수	비율
고민	이성문제	46 (5.5)
	동성친구문제	39 (4.7)
	학교성적	368 (44.2)
	외모	66 (7.9)
	건강	15 (1.8)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2 (0.2)
	기타	296 (35.6)
불만	부모-자녀 관계	264 (32.9)
	경제적문제	148 (18.4)
	학교성적으로 인한 불화	130 (16.2)
	가족의 건강문제	96 (11.9)
	종교적 갈등	26 (3.2)
	기타	140 (17.4)

이것은 김 등(1991)의 연구보고와 거의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으며, 대상자의 불만문제중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불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김 등(1991)의 연구보고에서 나타난 10.4%보다 높은 32.9%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음주 및 흡연습관

대상자 아버지의 69.1%, 어머니의 37.2%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1991)의 연구에서의 학교 청소년의 부모보다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 마시는 빈도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18.1%, 어머니가 0.3%인데 반해, 김(1991)의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년의 아버지가 15.7%, 어머니가 2.4%로 나타나 아버지의 경우 음주빈도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를 하는 부모에 대한 대상자의 느낌은 대체로 '나쁘게 보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흡연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69.7%, 어머니의 1.2%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1991)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아버지의

<표 3> 부모의 음주 및 흡연습관 (n=965)

내용	부 모	
	인수(비율)	인수(비율)
음주빈도	거의 매일	3(0.3)
	일주일에 1-2회	37(4.3)
	한달에 1-2회	283(32.6)
	가끔	0(0.0)
	전혀 못한다	545(62.8)
	계	868(100.0)
음주에 대한 대상자 느낌	좋게 보인다	25(5.6)
	그저 그렇다	182(53.8)
	나쁘게 보인다	131(38.7)
계	338(100.0)	
흡연량	하루 한갑이상	5(0.6)
	하루 반갑이상	1(0.1)
	하루 2-3개피	4(0.5)
	가끔	0(0.0)
	전혀 못한다	786(98.8)
계	796(100.0)	
흡연에 대한 대상자 느낌	좋게 보인다	2(4.1)
	그저 그렇다	7(14.3)
	나쁘게 보인다	40(81.6)
계	49(100.0)	

흡연량을 볼 때, 하루 반갑 이상 피우는 경우가 50.3%로 김(1991)의 연구에서 68.9%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적었다.

이와 같이 흡연을 하는 부모에 대한 대상자의 느낌은 '나쁘게 보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음주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흡연에 대해서는 81.6%가 '나쁘게 보인다', 14.3%가 '그저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대부분의 대상자가 좋지 않은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의 약물습관 (n=965)

내 용	인 수	비 율
습관적 약물복용 여부		
예	95	11.3
아니오	748	88.7
계	843	100.0

〈표 5〉 대상자의 학교생활

구	분	인 수	비 율
학교생활	즐겁다	272	28.7
	차차 흥미가 생긴다	204	21.5
	별 생각없이 다닌다	309	32.6
	흥미가 없다	104	11.0
	싫다	60	6.3
어울리는 친구수	없다	92	9.5
	1명	113	11.7
	2-3명	457	47.4
	4-5명	194	20.1
	6명 이상	108	11.2
만나는 빈도	거의 매일	475	51.2
	1주일에 3-4번	172	18.5
	1주일에 1번	196	21.1
	한달에 한번	85	9.2
만나는 장소	길가나 놀이터	252	27.3
	오락실, 만화가게	154	16.7
	다방, 카페	34	3.7
	극장	28	3.0
	유흥장소	7	0.8
	당구장	22	2.4
	기타(독서실, 친구집)	425	46.1
존경하는 선생님 유무	있다	512	53.2
	없다	168	17.5
	생각해 보지 않음	282	29.3
선생님의 흡연여부	대부분 흡연한다	290	30.2
	일부만 흡연한다	439	45.8
	거의 흡연하지 않는다	230	24.0
흡연선생님에 대한 생각	피우는 모습이 좋아보인다	31	3.3
	선생님이니까 이해한다	188	20.0
	피워서는 안된다	721	76.7
학교밖에서의 흡연에 대해	상관할 문제이다	557	58.2
	학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	269	28.1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상관할 문제이다	131	13.7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131	13.7
씨클 가입	가입했다	199	20.8
	가입하지 않았다	760	79.2

4) 부모의 약물습관

부모의 약물사용에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부모가 11.3%로 김(1991)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씨클 가입유무는 안했다가 79.2%로 거의 대부분이 씨클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고 가입한 경우가 20.8%로 나타났다.<표 5>

5) 대상자의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다닌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2.6%로 가장 높았으며, 즐겁다가 28.7%, 차차 흥미가 생긴다가 21.5%, 흥미가 없다가 11.0%, 싫다가 6.3% 순으로 김 등(1991)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이 즐겁다 29.2%, 차차 흥미가 생긴다 23.4% 별 생각없이 다닌다 27.8%, 흥미가 없다 12.7%였던 연구결과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어울리는 친구수는 2-3명이 47.4%로 제일 많았으며, 4-5명이 20.1%, 1명이 11.7%, 6명이상이 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는 9.5%로 제일 많았으며, 1주일내 1번이 21.1%, 1주일에 3-4번이 18.5% 한달에 한번이 9.2%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만나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길가나 놀이터가 27.3%, 오락실·만화 가게가 16.7%, 다방·카페·당구장 등도 소수 있었으며, 그 밖에 독서실, 휴게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46.1%였다. 따라서 73.4%의 학생들은 건전한 장소(길가, 놀이터, 독서실, 친구집 등)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에서는 있다가 53.2%, 없다가 17.5%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9.3%나 있었다.

선생님의 흡연 여부는 일부만 흡연한다가 45.8%, 대부분 흡연한다가 30.2%, 거의 흡연하지 않는다가 24%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하는 선생님께 대한 생각은 피워서는 안된다가 76.7%로 제일 높았으며, 선생님이니까 이해한다가 20.0% 피우는 모습이 좋아보인다가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1989)이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1%가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피워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청소년들이 교사들에 대해 바람직한 모델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밖에서의 흡연에 대해 학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는 상관할 문제이다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상관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가 28.1%,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

2. 약물사용 실태

1) 약물분류에 따른 약물사용 인수 및 비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10개 중고등학교 학생중 총 1058명을 대상으로 약물종류별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중 최종 965명의 학생에 대해 약종류 사용인수와 사용한 약물의 빈도를 전체 대상자 수에 대한 유경험자 수의 비율로 분석하였다.

가) 진통제

진통제의 종류는 상품명별로 게보린, 사리돈, 펜잘, 다가, 폰탈, 타이레놀, 옴타리돈이 있으며, 본 연구대상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는 게보린, 사리돈, 펜잘, 타이레놀로 김 등(1991)의 전국 청소년 약물실태조사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학교 청소년의 경우 게보린 68.8%, 펜잘 57.5%, 사리돈 38% 등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60.3%, 52.5%, 29.1%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전체 진통제의 사용에 있어서는 약물종류별 누적분포에 따른 비율인 154.3%로 김 등(1991)의 연구결과인 202.8%보다 크게 낮아졌다.

나)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로는 아티반, 옥시돌, 프링가, 액티바, 아빌 등의 상품명을 가진 약물을 말하며 연구대상 학생의 경우 각각 0.2%-0.3% 정도의 비슷한 사용 경험율이 나타났으며 전체 항히스타민제와 각각의 경우 모두가 김 등(1991)의 연구결과 보다 낮은 사용율을 나타냈다.

다) 수면진정제

수면진정제는 세코날, 파세돈, 리브리움, 바리움정, 달마딘, 캅셀 등의 상품명을 가진 약물을 말하며 파세돈이 0.6%로 가장 사용경험자가 많았으며 김 등(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전체 수면진정제 사용경험자는 약물종류별 누적 분포에 따른 비율로 1991년도의 2.6% 사용율에서 감소한 1%였다.

라) 각성제

각성제는 타이밍, 나이트, 레트린 등의 상품명을 가진 약물로 이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인체를 보다 활력 있게 해주는 물질로써 카페인 계통의 약한 각성제와 암페타민류의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타이밍이 7.4%로 가장 사용경험율이 높았으며 김 등(1991)의 연구결과(6.1%) 보다 다소 높아졌고 전체 각성제 사용경험율은 약물종류별 누적분포에 따른 비율로 1991년도에 8.8%에서 8.1%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중 에스나민, 하트마임, 암페타민, 스루에스팅 등을 사용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 환각제

환각제는 대마초, LSD, 마리화나로 불리는 약물을 말하며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전체 환각제의 사용율은 약물종류별 누적 분포에 따른 비율인 0.9%로 1991년도의 사용율 1.2%보다 낮아졌으며 대마초 0.7%, 마리화나 0.2%, LSD 0.1%로 나타났다.

바) 흡입제

흡입제는 정신이나 육체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로써 본드, 부탄, 아세톤, 신나, 툴루엔, 벤젠 등을 말한다.

흡입제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본드(1.7%)와 부탄(1.0%)이었으며, 전체 흡입제의 사용경험율은 약물종류별 누적분포에 따른 비율인 3.2%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도의 6.3%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조(1991)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서의 흡입제 사용율이 1.3%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높았다.

사) 마약제

마약은 통증을 덜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써 코데인, 러미라, 몰핀, 헤로인, 데메콜, 코카인 등이 있다. 마약제 중에는 몰핀의 사용경험자가 가장 많았으며(0.8%) 전체 마약제 사용경험율이 약물종류별 누적분포에 따른 비율인 1.7%로 1991년도 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청소년의 약물사용경험 (n=965)

구 분	인수	비율
진 통 제	1633	154.3
계 보 린	576	54.4
사 리 돈	274	25.9
펜 질	497	47.0
다 가	13	1.2
폰 탈	14	1.3
타이레놀	253	23.9
유타리돈	6	0.6

구 분	인 수	비 율
항히스타민	12	1.1
아 티 반	2	0.2
옥 시 돌	3	0.3
프 링 가	2	0.2
엑 티 바	2	0.2
아 빌	3	0.3
수면진정제	11	1.0
세 코 날	1	0.1
파 세 돈	6	0.6
리브리움	1	0.1
바리움정	2	0.2
달마뉘캡셀	1	0.1
각 성 제	86	8.1
타 이 밍	78	7.4
나 이 트	4	0.4
레 트 린	1	0.1
히 로 뽕	1	0.1
에스나민	0	0.0
하트마임	0	0.0
암페타민	0	0.0
에페드린	2	0.2
스루에스팅	0	0.0
환 각 제	10	0.9
대 마 초	7	0.7
LSD	1	0.1
마리화나	2	0.2
흡 입 제	34	3.2
본 드	15	1.7
부 탄	9	1.0
아 세 톤	2	0.2
신 나	4	0.4
툴 루 엔	2	0.2
벤 젠	2	0.2
마약제	18	1.7
코 데 인	1	0.1
러 미 라	1	0.1
몰 핀	8	0.8
헤 로 인	3	0.3
데 메 콜	1	0.1
코 카 인	4	0.4

2) 흡연 및 음주경험

가) 대상자의 흡연경험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5.8%로 김(1991)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흡연 동기로는 '호기심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그 밖에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김(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 빈도에 있어서는 김(1991)의 연구에서 16.6%가 매일 피운다고 응답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20.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 대상자의 흡연경험 (n=965)

구분	인수	비율
흡연 경험	있다	232 25.8
	없다	665 74.2
계	897	100.0
흡연 시기	3개월 이내	48 25.0
	3-12개월	55 28.6
	1-3년	45 23.5
	3년 이상	44 22.9
	계	192 100.0
흡연 동기	호기심 때문에	149 64.5
	친구의 권유	51 22.1
	선배의 권유	11 4.8
	계	843 100.0
최근의 흡연 빈도	매일 피운다	47 20.3
	매주마다 피운다	6 2.6
	1주에 1-2회	22 9.5
	1달에 1-2회	7 3.0
	1년에 1-2회	4 1.7
	피우지 않는다	146 62.9
계	232 100.0	

나) 대상자의 음주경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3.7%로 김(1991)의 연구에서 52.8%로 나타난 것보다 높았다.

음주에 대한 동기로는 친구의 권유가 35.1%로 가장 높았고, 호기심이 22.6%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1991)의 연구에서 호기심이 37.2%, 친구 권유가 21.1%로 나

타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의 음주 빈도에 있어서는 매일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3%로 김(1991)의 연구와 유사했으며,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6.8%로 김(1991)의 연구에서 63.8%로 나타난 것과 유사했다.

위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3.7%였으나, 최근의 음주빈도에서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6.8%로 나타났으므로, 실제로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33.2%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하겠다.

<표 8> 대상자의 음주경험 (n=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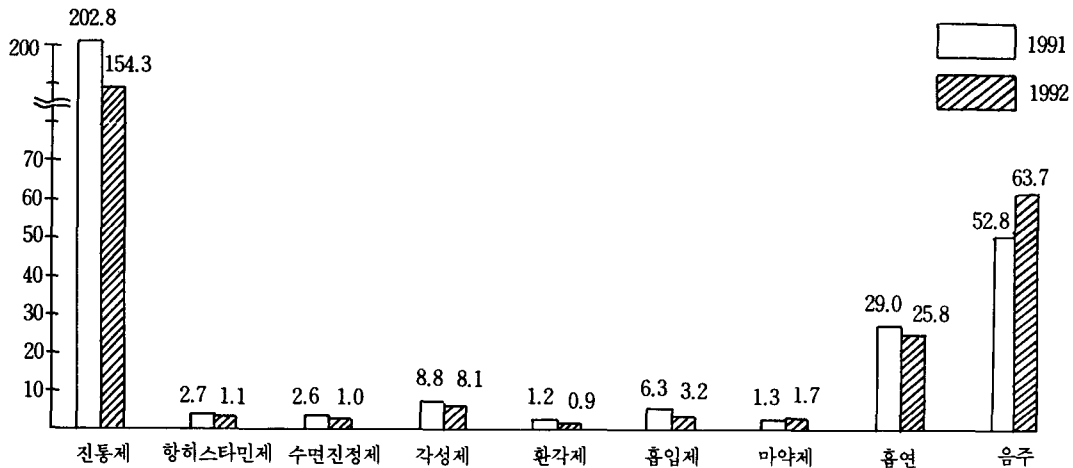
내용	인수	비율
음주 경험	있다	570 63.7
	없다	325 36.3
계	895	100.0
음주 시기	3개월 이내	184 37.2
	3-12개월	205 41.5
	1-3년	67 13.6
	3년 이상	38 7.7
계	494	100.0
음주 동기	호기심 때문에	119 22.6
	친구의 권유	185 35.1
	선배의 권유	21 4.0
	기타	202 438.3
계	527	100.0
최근의 음주 빈도	매일 마신다	7 1.3
	매주마다 마신다	7 1.3
	1주에 1-2회	13 2.4
	1달에 1-2회	77 14.1
	1년에 1-2회	78 14.2
	마시지 않는다	366 66.8
	계	548 100.0

3) 약물사용에 관한 추이분석

1991년 문화체육부(김소야자)에서 조사한 청소년 약물남용 연구와 1992년의 서울지역의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약물 분류에 따른 약물사용 경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음주는 52.8%에서 63.7%로 증가하고 마약제는 0.3%에서 1.7%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흡연, 진통제, 항히

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등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1〉 학교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자 분포

4) 약물사용빈도

약물별 사용빈도를 보면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끔 사용이 54.3%, 과거에 일시적 사용이 23.5%였으며, 항히스타민의 경우 가끔 사용이 66.7%였고, 수면진정제의 사용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경우가 4%, 시험적으로 한두번 또는 가끔 사용이 각각 27.5%였다. 각성제의 사용은 시험적으로 한두번 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각각 28.6%였다. 그리고 흡입

제 사용의 경우는 과거에 일시적 사용이 50%, 시험적으로 한두번이 33.3%였으며, 마약제의 경우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53.3%였다.

따라서 자주 혹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소수의 학생에게서 나타났으며 진통제 이외의 약물에서 각성제를 시험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경우가 81.3%로 다른 약물에 비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약물별 사용빈도

빈도	인수(비율)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
시험적으로 한두번	100(17.1)	1(16.1)	3(27.3)	45(60.0)	2(28.6)	6(33.3)	1(6.7)
과거에 일시적사용	137(23.5)	1(16.7)	4(36.4)	16(21.3)	2(28.6)	9(50.0)	8(53.5)
자주사용	23(3.9)	0	1(9.1)	4(5.3)	1(14.3)	3(16.7)	2(13.3)
주1-2회 정기적사용	7(1.2)	0	0	0	1(14.3)	0	1(6.7)
가끔사용	317(54.3)	4(66.7)	3(27.3)	10(13.3)	1(14.3)	0	3(20.0)
계	584(100.0)	6(100.0)	11(100.0)	75(100.0)	7(100.0)	18(100.0)	15(100.0)

5) 약물별 사용동기

약물별 사용동기는 모험추구형, 평화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추구형, 초월명상추구형, 성적동반자추구형, 미적감각추구형, 잠을 안자기위해, 심심해서 사용했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김 등(199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잠을 안자기 위해서 49.4%와 호기심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얻기위해서 등의 모험추구형이 17.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잠을 안자기 위해서 각성제를 사용한다는 경우가 83.9%로 학생의 학교성적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과 환각제 66.6%, 흡입제 46.6%, 마약제 33.3% 등의 사용율이 다른 동기보다 높은 것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사용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표 10> 약물별 사용동기

동기	인수(비율)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	계
모험추구형	9(13.2)	0	1(14.3)	5(8.9)	4(66.6)	7(46.6)	2(33.3)	28(27.7)
평화추구형	9(13.2)	0	2(28.5)	1(1.8)	1(16.7)	3(15.0)	3(50.0)	19(12.0)
교우관계추구형	8(11.8)	0	0	1(1.8)	0	3(15.0)	0	12(7.6)
힘추구형	3(4.4)	0	3(42.9)	0	0	0	0	6(3.8)
초월명상추구형	2(2.9)	0	0	0	0	1(6.7)	0	3(1.9)
성적동반자추구형	3(4.4)	0	0	2(3.6)	0	0	1(16.7)	6(3.8)
미적감각추구형	1(1.5)	0	0	0	0	0	0	1(0.6)
잠을 안자기위해	30(44.2)	0	1(14.3)	47(83.9)	0	0	0	78(49.4)
심심해서	3(4.4)	0	0	0	1(16.7)	1(6.7)	0	5(3.2)
계	68(100.0)	0	7(100.0)	56(100.0)	6(100.0)	15(100.0)	6(100.0)	158

6) 약물별 사용계기

약물별 사용계기를 보면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의 신체증상감소가 각각 93.6%와 80%로 가장 많았고 각성제는 공부·시험준비가 91.7%로 가장 많아 입시 스트레스가 약물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흡입제는 호기심·충동이 55.6%, 친구권유가 33.3%였으며, 수면진정제는 스트레스 해소가 5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외 환각제는 슬픔, 외로움, 우울이 33.3%였다.

<표 11> 약물별 사용계기

빈도	인수(비율)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	계
신체증상감소	427(93.6)	4(80.0)	0	0	1(16.7)	0	8(53.3)	
공부시험준비	4(0.9)	0	2(33.3)	55(19.7)	1(16.7)	0	3(20.0)	
친구권유	0	0	0	2(3.3)	0	3(33.3)	1(6.7)	
스트레스해소	14(3.1)	1(20.0)	3(50.0)	2(3.3)	1(16.7)	0	1(6.7)	
호기심·충동	3(0.7)	0	0	1(1.7)	1(16.7)	5(55.6)	1(6.7)	
슬픔·외로움·우울	8(1.8)	0	1(16.7)	0	2(33.3)	1(11.1)	1(6.7)	
계	456(100.0)	4(100.0)	6(100.0)	60(100.0)	6(100.0)	9(100.0)	15(100.0)	

7) 약물별 사용후 느낌

약물을 사용한 후 느낌이 어떠했는지 중복 응답하게 하였을때 표-11과 같이 무감각이 34.4%, 잠이오고 의식이 흐려졌다 22.8% 그외 기분이 나빴다 3.9%, 구역질이 나고 몸이 피로했다 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즐거워지고 말이 많아졌다 2.8%, 황홀한 기분을 느꼈다 1.9% 등으로 낮게 나타나서 김 등(199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약물사용이 감소하였고 약물에 대한 탐닉적 느낌이 감소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12〉 약물별 사용후 느낌

인수(비율)

느 낱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	계
무감각	125(36.2)	2(33.3)	2(14.3)	22(32.8)	3(42.9)	3(21.4)	3(25.0)	160(34.3)
잠이오고 의식이 흐려졌다	75(21.7)	3(50.0)	6(42.9)	19(28.4)	0	2(14.3)	1(8.3)	106(22.8)
즐거워지고 말이 많아졌다	10(2.9)	0	0	1(1.5)	0	2(14.3)	0	13(2.8)
접이없어지고 용기가 생겼다	1(0.3)	0	0	0	0	1(7.1)	1(8.3)	3(0.6)
황홀한 기분을 느꼈다	6(1.7)	0	0	0	1(14.3)	1(7.1)	1(8.3)	9(1.9)
환시나 환청을 경험했다	3(0.9)	0	0	0	0	2(14.3)	0	5(1.1)
구역질이 나고 몸이 피로웠다	10(2.9)	0	1(7.1)	3(4.5)	0	0	0	14(3.0)
우울해지고 자기고민에 빠졌다	4(1.2)	0	1(7.1)	3(4.5)	0	0	0	8(1.7)
기분이 나빴다	8(2.3)	0	2(14.3)	4(6.0)	1(14.3)	1(7.1)	2(16.7)	18(3.9)
죄진것 같고 두려웠다	1(0.3)	0	0	1(1.5)	0	2(14.3)	0	4(0.9)
시비결고난폭해졌다	2(0.6)	0	1(7.1)	1(1.5)	0	0	1(8.3)	5(1.1)
기 타	100(29.0)	1(16.7)	1(7.1)	13(19.4)	2(28.6)	0	3(25.0)	120(25.8)
계	345(100.0)	6(100.0)	14(100.0)	67(100.0)	7(100.0)	14(100.0)	12(100.0)	465(100.0)

8) 약물 구입처, 구입용이도, 구입자금출처, 사용장소(가) 구입처

약물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78.3%나 차지하였고 병원이 7.9%였으며, 그외 구멍가게 3.2%, 가족 3.2%, 손수재배 3.2%, 친구·선배 2.7%였다. 그 외에도 유흥장, 훔쳤다, 행상으로부터 약물을 구입했다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표 13〉 약물 구입처 (n=965)

구 분	인 수	비 율
약국	318	78.3
병원	32	7.9
구멍가게	13	3.2
행상	1	0.2
유흥장	3	0.7
가족	13	3.2
친구·선배	11	2.7
손수재배	13	3.2
훔쳤다	2	0.5
계	400	100.0

나) 구입용이도

약물 구입용이도는 쉽다는 경우가 전체의 84.4%로 김 등(1991)의 연구결과인 49.2%보다 훨씬 높았으며,

매우어렵다 13.1%, 그저 그렇다는 2.6%로 낮은 비율을 보여 점차 약물구입이 용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약물 구입용이도 (n=965)

구 분	인 수	비 율
매우어렵다	46	13.1
그저 그렇다	9	2.6
쉽다	297	84.4
계	352	100.0

약물사용장소로는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6.7%로 가장 많았고 독서실 2.7%, 놀이터·공원·야산 2.7%, 학교 1.8% 였으며, 술집·디스코장이 0.9%, 만화가게·오락실 0.6%, 여관 0.6%도 있었다.

이것은 김 등(199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집에서 사용한다 36.1%, 놀이터·공원·야산 20.3%, 여관 17.9%, 술집·디스코장 10.6%로 약물을 집에서 사용한다는 경우가 많이 증가한 반면 여관 등의 유흥장소나 공원에서 사용한다는 경우는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약물을 사용하는 장소인 가정에서의 가족들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표 15> 약물사용장소 (n=965)

내 용	인 수	비 율
집	286	86.7
학교	6	1.8
독서실	9	2.7
만화가게, 오락실	2	0.6
술집, 디스코장	3	0.9
여관	2	0.6
놀이터, 공원, 야산	9	2.7
기타	13	3.9
계	330	100.0

9) 약물복용에 대한 부모 및 담임 선생님 인지 여부
 약물복용에 대한 부모 및 담임선생님 인지 여부를 보면, 먼저 부모인지에서 부모 모두 안다가 75.9%나 되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는 경우는 4.7%로 김 등(1991)의 12.2%에서 약간 감소한 8.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담임선생님의 인지에서도 모른다가 51.3%로 1991년도 51.7%와 유사했으며 안다는 8.1%로 1991년도 11%보다 약간 감소했다.

따라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약물사용에 대해 다수가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약물사용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6> 약물복용에 대한 부모 및 담임선생님 인지 여부

내 용	인 수	비 율
부모인지		
부모 모두 모른다	28	8.8
아버지만 안다	1	0.3
어머니만 안다	14	4.4
부모 모두 안다	242	75.9
모르겠다	34	10.7
계	319	100.0
담임선생님 인지		
안다	25	8.1
모른다	158	51.3
잘모르겠다	125	40.6
계	308	100.0

10) 약물사용시 병행약물
 약물사용시 한가지만 사용한다는 경우가 58.6%로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약물을 2가지 이상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7.2%로 학생의 약물중복사용실태도 나타났다.

<표 17> 약물사용시 병행약물

구 분	인 수	비 율
한가지만 사용	147	58.6
2가지 사용	17	6.8
3가지 사용	1	0.4
잘 모르겠다	86	34.3
계	251	100.0

11) 약물사용후 상담 필요성 및 상담 대상지
 약물사용후 상담 필요성 및 상담대상자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약물사용자의 경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5.7%였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대상자로는 친구나 선배가 35.5%, 부모가 35%로 다수가 응답하였으며 상담전문가는 10.7%, 의사나 약사는 7.8% 응답하였다.
 한편 상담대상자로서 학교선생님은 3.1%로 소수가 응답하였고 주위에 의논 대상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2.5%나 되었다.

<표 18> 약물사용후 상담 필요성 및 상담 대상자

내 용	인 수	비 율
상담필요성 있다	187	55.7
없다	149	44.3
계	336	100.0
상담대상자 주위에 의논대상자가 전혀없다	5	2.5
부모	69	35.0
형제	5	2.5
친구나 선배	70	35.5
목사, 신부, 스님	6	3.1
학교선생님	6	3.1
상담전문가	21	10.7
의사나 약사	15	7.6
계	197	100.0

12) 대상자의 비행행위 경험
 대상자의 비행행위 경험은 음란 비디오 관람이 43.1%로 가장 많았고, 심한 반항이 24.8%였으며, 그 밖에 무단결석, 학교 처벌, 가출 등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1991)의 연구에서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음란비디오 관람은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9〉 대상자의 비행행위 경험

내 용	인 수	비 율
심한 반항	223	24.8
무단 결석	60	6.9
학교 처벌	64	7.2
가출	49	5.5
경찰서 보호	25	2.8
흉기 소지	48	5.3
금품 갈취	57	6.4
성관계	58	6.4
음란비디오 관람	402	43.1

3. 약물사용과 제 변인과의 관계

아버지의 음주, 흡연 및 약물사용 여부와 청소년의 음주, 흡연, 약물사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약물사용과 청소년의 약물사용, 그리고 아버지의 약물사용과 청소년의 음주 사이에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표 20〉 아버지의 약물사용과 청소년의 약물사용과의 관계

		아버지의 약물사용 여부		Chi-square	자유도	인수(비율)
						유의수준
청소년의 약물사용 여부	예	71(9.7)	6(0.8)	14.95203	1	.0001
	아니오	466(63.4)	192(26.1)			

〈표 21〉 아버지의 약물사용과 청소년의 음주와의 관계

		아버지의 약물사용 여부		Chi-square	자유도	인수(비율)
						유의수준
청소년의 음주여부	예	78(9.4)	16(1.9)	16.38262	1	.0001
	아니오	448(54.1)	286(34.5)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한 청소년의 약물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남용에 관련된 변수를 규명하여 약물남용에 따른 예방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1992년 9월 당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중인 학교청소년으로 연령이 만 12세에서 만 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서울의 600여 인문계 중·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무작위로 표출하여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965명으로 남자 중학생 253명, 남자 고등학생 263명, 여자중학생 249명, 여자고등학생 20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김소야자가 1991년 청소년 약물실태조사에서 사용하였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질문지법에 의해 1992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직접 방문 회수의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의 방법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인구 및 백분율, ANOVA, t-test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약물사용 실태를 약물종류별 누적분포에 따른 비율로 보면 진통제가 154.3%로 제일 높았고, 각성제가 8.1%, 흡입제는 3.2%, 마약제는 1.7%로 나타났다.
- 2) 흡연의 경험은 25.8%, 음주는 63.7%로 나타났다.
- 3) 약물사용에 관한 추이 분석에서 92년도와 비교해서 음주가 52.8%에서 63.7%로 증가하고, 마약제는 0.6%에서 1.7%로 증가하였으며 그외의 흡연,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등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 4) 약물사용동기에 있어서 잠을 안자기 위해서가 49.

4%,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 등의 모험추구형이 27.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잠을 안자기 위해서 각성제를 사용한다는 경우가 83.9%로 높아 약물사용과 학생의 학교성적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물사용후 느낌은 무감각 34.3%, 잠이 안오고 의식이 흐려짐 22.8%로 나타났다.

- 5) 약물의 구입처로는 약국이 78.3%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84.4%가 약물을 쉽게 구입하였으며 약물사용장소는 집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독서실 놀이터나 야산 등도 있었다.
- 6) 약물남용의 상관변인 분석에서 아버지의 약물사용과 청소년의 약물사용 및 음주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결론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약물 사용 정도가 2년전에 비해 비교적 감소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청소년층에서 습관성과 의존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약물이 남용되고 있으며, 약에 대한 올바른 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약물이 남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진통제나 각성제의 경우 광고에 의해 쉽게 알려져 있는 약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때 약물에 대한 메스컴의 과도 광고에 의해 약물에 쉽게 친숙해지고 접근하여 약물에 의존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흡입제·마약제의 사용이 환각상태에서 청소년 비행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차원의 관심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약물별 사용 동기가 잠을 안자기 위해, 모험심을 위해, 평화감을 위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함 등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의 감정상태와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계기에 의해 행동으로 옮길 소지가 많음을 지적해야겠다.

그리고 부모가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약물과 음주 양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물남용의 선형요인으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약물에 대한 광고, 약물유통 경로에 대한 전 국가

차원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약물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약물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남용의 진행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 3)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약물남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 내 양호교사를 통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약물에 이미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진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학교 내의 의사 통로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재활 프로그램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빈(1991). 청소년의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 마약류 남용 시민 공개 강좌 주제 강연. 대한보건협회.

김성이(1989).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분석,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 심포지엄 보고서 주제 강연. 대한적십자사.

김성이 외(1989).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실태와 예방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소야자(1992). 청소년약물남용예방대책 : 양호교사의 약물교육 효과연구, 체육청소년부.

_____ (1991). 청소년약물남용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_____ (1989). 도시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경험 정도와 상담 및 교육의 필요 정도, 간호학논집, 제13집, 1-16.

_____ (1987). 청소년 성장발달과 간호, 수문사 : 서울.

_____ (1987). 개정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 서울.

김순이(1988). 약물남용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실태조사. 최신의학, 31(6), 130-141.

김준기·민성길(1990). 히로뽕남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1), 47-58.

김현수·박인호(1989). 정신과에 입원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의학, 54(8), 549-557.

김현수 외 4인(1988). 청소년과 약물문제. 중앙의대지, 13(3), 417-424.

김현수 외 2인(1988). 약물남용 청소년의 환경역동적 분석. 중앙의대지, 13(4), 491-498.

민병근·김현수(1987). 청소년의 약물 남용. 신경정신

의학, 26(4), 605-613.

백명기·민병근(1981).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용 빈도 및 약물 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2), 234-248.

박명운(1990).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3(겨울) : 115-126.

이경자(1988). 초·중학생을 위한 보건교육의 영역 및 주요개념 선정에 관한 일 연구. 박사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문자(1981). 서울시내 일부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습관성 약물사용 실태조사. 보건장학회 연구논문.

이길홍 외 5인(1985).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 변인분석. 한국의과학, 17(2), 43-60.

이길홍 외 8인(1991). 범법 정신 장애자와 일반 정신 장애자의 약물 사용 양상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 의과학, 23(1), 82-110.

주왕기(1991). 약물남용! 무엇이 문제인가? : 마약류 남용 시민 공개강좌 주제 강연. 대한 보건 협회.

함 응 외 3인(1985). 성의식구조 및 행동양식의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의 대지, 10(2), 215-231.

Dorn, N., & Thompson, A.(1976). Evaluation of drug education in the longer term is not an optional extra. Community Health, 7, 154-161.

Edgar, P.N., Andrew L.M.(1975). Addicted and Non addicted Drug Us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lry, 32(1), 77-80.

Ellickson, P.L. & Bell, R.M.(1990). Drug Prevention in junior High : A multi-site longitudinal test. Science, 247, 1299-1305.

Evans, R.I. & Rozelle, R.H., et. al.(1978). Deterring the onset of smoking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8, 126-135.

Flay, B.R., Koepke, D.,(1989). Six-year follow-up of the first waterloo School smoking prevention tria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10), 1371-1376.

McAlister, A., Perry, C.(1979). Adolescent smoking : Onset and Prevention. Pediatrics, 63, 650-658.

McRae, C.F., & Nelson, D.M.(1971). Youth to

youth communication on smoking and health. Journal of School Health, 41, 445-447.

Newcomb, M.(1983). Mothers' influence on the drug use of thei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 714-726.

Perry, C.L., Killen, J., et. al.(1980). Modifging smoking behavir of teenagers : A School-based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0, 722-725.

Reilly, D.M.,(1978). Family factors in the etiology and treatment of youthful drug abuse, Family Therapy, 2 : 149-171.

Ruth, M.Silvia W.(1980). "Coffee Grou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1), 91-93.

- Abstract -

The Survey of Adolescent Drug abuse in Seoul

Kim, So Ya Ja* · Hyun, Myung Sun*
Sung, Kung Mi* · Kong, Seong Suk*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adolescent drug use in Seoul, and to compare this with the 1991 surve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1000 students i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 1992 to December 30, 1992.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So Ya Ja (1991) to survey adolescent drug use was use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ith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revalence of Substance use :

Antihistamines were used by 0.3% of adolescent, Sedatives 0.6%, Stimulants 8.1%,

* College of Nursing, Yon Sei University

Hallucinogens 0.9%, Inhalants 3.2%, Narcotics 1.7%, and Analgetics 154.3%.

2. Trend in substance use compared to the 1991 surbey :

Alcohol use increased from 52.8% to 63.7% and narcotics from 0.6% to 1.7%, while Smoking, Analgetics, Antihistamines, Sedatives, and Inhalants showed a decrease.

3. Smoking and Alcohol use :

Twenty five percent of school adolescent had experienced cigarette smoking and 63.7% of school adolescent had experienced alcohol use.

4. Motives for drug use : The highest was avoidance of sleep at 49.4% and the next highest was adventure seeking at 27.7%.

As to feeling after drug use, 34.3% felt apathy, 22.8% had feelings of sleepiness and uncon-

sciousness.

5. Places were dreg were purchased :

The most frequent was the drug store(78.3%) and 84.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drug purchase was easy and 86.7% that drug use was mainly at home.

6. Related Variables :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score for drug and alcohol use by adolescents whose fathers used drugs. (PC. 05)

In conclusion, adolescents in Seoul showed in decrease in the tendency to use drugs compared to the 1991 survey, however drugs which are habit-forming and lead to dependency are still being abused.

Therefore, counter-plans and preventive stratiges are important.